



WATER
FOR
FUTURE



화랑천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은 값진 보물



조 철 규
육군사관학교 시설대장
jo6443@hotmail.com

육군사관학교는 수해 예방과 사관생도 및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목동천의 지류인 화랑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금년 6월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학교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102억 원의 예산으로 교내를 통과하여 흐르는 화랑천 1.2km 구간에 교량 4개소, 인도교 1개소, 제2정문을 신축하였으며, 생태 하천조성과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최초로 화랑천 하천 정비 사업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통수 단면적을 늘리고 방치된 공간을 정비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화랑천은 육군사관학교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1일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이곳 태릉에서 문을 열기 이전부터 불암산에서 발원하여 교내를 관통해 흐르는 조그만 하천이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하여 하상



사진 1. 화랑천 정비 전(좌)과 후(우) : 정비 후 시민의 접근성과 생태적 개방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모습

에는 퇴적물이 쌓이고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르는 각종 오수 및 우수관로에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진동하였다. 하상 및 제방에는 플라타너스 등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낙엽은 유속이 없는 하상에 쌓여 부패하면서 하천의 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 및 설계 과정에서 이런 모든 오염원을 찾아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초 부족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공사였지만 경춘선 폐선 공원화 계획과 학교 이미지 개선에 주안점을 두도록 과감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친환경적으로 시공하였다. 특히 제방을 철거하면서 발견된 용도가 모호한 오수 및 우수관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분류하수관에 연결시키고 오수가 섞여 흐르는 우수관은 별도의 차집설비를 만들어 분류하수관으로 오수가 유입되도록 하였다.

하천의 상류구간 지역은 민원실 주변으로 외부 관

광객의 출입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자연식으로 제방 및 호안을 정비하고 수생식물과 각종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정원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정문과 제2정문 사이의 중류 지역은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낙차공을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심어 서식처를 제공하였다. 하류구간에는 둔치를 활용하여 오솔길을 설치하고 친환경 태양열 썰라 등을 설치하여 경관을 한층 개선하였다. 제방 및 둔치를 활용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는 화랑대 지하철역 및 중랑천과 연결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랑천 정비 사업은 최초 계획했던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사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공간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더욱 값진 보물은 생태환경의 복원이다. 금년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오면서 하



사진 2. 화랑천 정비 전(좌)과 후(우) : 통수단면의 확대와 더불어 아름다운 조형물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비가 어우러진 모습



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난 후 낙차공을 설치한 지역에 백여 마리의 잉어 때가 물을 거슬러 올라와 유유자적하게 노닐고 있다. 또한 이미 자취를 감추었던 가재가 화랑천으로 유입되는 수로에 서식하고 있다. 참게도 화랑천과 연결되는 수로 및 교내 연못까지 올라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종 조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름 모를 야생 오리 부부가 알을 낳아 부화하고 먹이 사냥을 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백로, 왜가리 등이 찾아와 노니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야간에는 너구리 가족이 화랑천으로 내려와 먹이 사냥을 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화랑천 정비 후에 얻은 또 다른 성과는 유입되는 오염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오염원의 출처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대응책도 쉽게 내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원천을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 알려 개선을 시키는 것도 아주 편리해졌다. 지금도 상류에서 일부 유입되는 오염원을 찾아 개선 중에 있다.

화랑천 정비 사업을 시작할 때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를 염려했다. 그러나 완공된 지금의 모습을 보고 화랑천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이 작은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환경의 파괴와 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소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이지만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규모 하천의 정비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생각된다. 화랑천 및 주변 유역은 인간의 손에 의해 개발되어 이미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오염원이 유입되고, 무분별하게 제방 및 하상에 자라난 나무는 유속을 방해하고 낙엽 등 유기물을 배출하여 하상에 퇴적되어 썩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자연의 모습인 줄 알고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런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터였다. 화랑천을 기존대로 보존했으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풍성한 생태계의 변화된 모습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한다.

화랑천 주변에는 학교 교수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숙소인 아파트가 있다. 이곳 주민들은 여름이면 극심하게 날아들던 모기가 올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수질이 개선되고 물고기가 서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이 순간 저 멀리서 유모차를 끌고 하천변을 산책하는 젊은 부부의 행복해 하는 모습과 너무 잘 어울리는 화랑천의 모습이 한눈에 펼쳐져 보인다. 🍃